

한국 古代紋樣이 現代 Symbol-mark에 미친 영향

- 太陽象徴 Mark를 中心으로 -

The Influence of Ancient Korean Patterns on Modern Symbol Marks

- Focusing on Sun Symbol Marks -

노 미 선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목 차

1. 논문개요
2. 서 론
3. 본 론
 - (1) 韓國的 Mark의 意義
 - (2) 韓國的 Mark 形成의 歷史的, 社會的 배경
 - (3) 太陽象徴의 Mark의 類型分類
 - (4) 太陽象徴 Mark의 類型別, 時代別 導出
4. 결 론
5. 참고문헌

Abstract

Countless symbol-marks that are produced and utilized in Korea currently have somehow lost their nationality and significance. In addition, the serious problem of imitation is being raised. As a result of deducing the original form of Korean-style symbol-marks in this age of information, it was prescribed that the sun symbol-marks that have come about through the harmony between consciousness, for beauty and sun worship which are in fact the spiritual principles governing the creative activities of the Koreans at root, are the Korean-style symbol-marks. They wer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of concepts. Their ideographic representation and significance were observed and lat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Korean-style symbol marks were organized. Furthermore, through a table which have arranged the marks in chronological order, this study presented future tendencies for the style of expression to return its primitive original form.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Symbol-mark들이 國籍과 意味가 상실되고 형태의 모방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독창성 있는 한국적 Symbol-mark의 原形을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인의 창작활동을 根底에서 지배하는 정신적 原理인 美意識과 태양숭배사상이 어우러져 형성된 태양상징마크가 한국적 Symbol-mark임을 규정하고 이를 7가지 群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그 表意的 形式과 象徴性を 考察하여 한국적 Symbol-mark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마크의 시대별 導出表를 통해 표현형식의 원초적인 原形형태로 되돌아가는 미래의 경향을 제시하였다.

I. 序 論

Mark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이 紋樣에서 발달해 왔으며 인간과의 機能的, 社會的인 관계에 의해서 종합된 表意的 形式과 象徵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Mark의 연구는 表意的 形式과 象徵性的 考察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Mark들이 제작 사용되고 있지만 國籍과 意味의 상실, 형태의 모방성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Mark는 樣式이나 意味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Mark의 가장 중요한 機能이 自會社와 他會社와의 識別力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형태의 구별에서 오는 의미의 정확한 傳達은 그 생명인 것이다.

本論은 韓國 고대문양의 表意的 形式과 象徵性的 考察을 통해 韓國 現代 Symbol-mark의 原形을 추정해 봄으로서 韓國 古代紋樣이 情報化時代에 繼承된 Symbol-mark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미래의 Mark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韓國的 Mark의 意義

Mark에도 樣式이 存在하는데 그 樣式이란 事實的형태라든가 단순하고 확실한 形態라든가 同一한 形의 반복적 사용이라든가 일정한 比例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樣式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時代的, 地域的, 社會的 배경이나 관심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속해있는 사회공동체의 思考방식이나 美的感覺, 社會, 文化배경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韓國的이라는 것은 결국 韓國人의 創作活動을 根柢에서 지배하는 精神的 原理로서의 美意識을 말한다.

2. 韓國的 Mark형성의 歷史的, 社會的 배경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中國과 알타이의 영향을 받은 太陽崇拜 民族이다.

時期的으로 보면 先史時代부터 암각화나 土器등에 기하학적 무늬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土器는 아랫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고 빗살무늬를 넣는 다든가 또 高杯뚜껑의 무늬등은 太陽崇拜思想에서 나온 土俗的인 樣式이다. 또 靑銅器時代에는 여러 청동제 장식이나 呪術의 用具에 同心圓象紋이나 星光象紋의 太陽象徵紋을 그려 太陽崇拜思想을 表出했다.

三國時代에는 內容的인 面에서 中國의 영향을 받은 神話, 說話的 要素(주1)와 佛敎文化에 의한 佛敎的 要素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新羅의 始祖 朴赫居世 와 부여의 해모수, 高句麗의 東明說話는 모두 太陽崇拜思想에서 나온 이야기로 특히 高句麗는 아시아의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太陽을 향해 敬拜하고 義式을 行하였다고 한다.(주2)

또 三國의 鳥羽插冠에 대한 풍습이나 新羅 金冠의 鳥羽形, 솟대위에 놓여진 새등의 새신앙 역시 太陽崇拜思想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조상들의 이러한 太陽崇拜思想은 宇宙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에 現代의 韓國的 Symbol-mark 형성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은 한국적 Mark라함은 太陽崇拜思想에서 기인된 太陽象徵 Mark라고 규정짓는다.(주3)

주1)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延鳥郎과 細鳥女의 傳說, 제주도 天地王 본풀이에 나오는 태양을 활로 쏘는 신화, '고산국과 진산국'신화나 '천지왕 신화'에 나오는 日出神話등

주2) 朴時人, 알타이 文化史 研究, 서울: 探求堂, 1982 p53 참고

주3) 노미선, "시각기호로서의 한국태양상징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36~37 참조

3. 太陽象徵 Mark의 類型分類

〈단군세기〉에 傳하는 加臨土文字와 훈민정음은 點과 圓과 線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點은 圓이 줄어서 된 것으로 太陽을 나타낸다. 또 이집트 象形文字(Hieroglyph)나 中國 甲骨文字 역시 太陽을 圓안에 點을 찍은 形態로 表記했다. 이것은 축소된 宇宙의 中心을 기하학적으로 表記한 것으로 太陽이 象徵하는 中心概念은 모든 觀念論的 종합의 출발점이며, 사실상 凡세계적 연장속에 취해진 위치들의 群의 概念이다. 그 表現은 여러 다른 傳統들 속에서 그 자체에 感情유발적인 장소들을 할당하고 있는데 곧 소도와 같은 聖地일 수도 있고, 聖靈의 神殿일 수도 있으며, 宇宙的 바퀴의 바퀴통일 수도 있다.

이러한 群의 概念에 의해 여러 類型이 생겨 나는데 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다.

①同心圓象紋：太陽의 傳統的 image이며 模像이다.

Platon은 〈TIMAEU〉에서 완전한 도형인 圓은 神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圓은 運動感과 活動性에 의해서 形成되며 모든 感情의 확장이고 時間을 구성하며 환원되는 계절, 죽음, 밤, 낮 등의 象徵이다. 이 리듬은 佛敎의 사리탑 돌이, Kaba를 도는 아랍의 巡禮者, 聖職者들이 香爐를 들고 聖殿을 도는것 등으로 表出되며 그 울타리안은 聖地와 같은 보호기능의 意味를 갖는다. 이러한 意味에서 Mandala는 神의 거처이다.

②車輪象紋：바퀴는 太陽回轉運動의 象徵이다.

바퀴는 回轉시키는 것에 의해서 불이 얻어졌다. 4개의 살로 된 바퀴는 계절과 달이 4개로 나누어지는 리듬으로 공간적인 4방향속의 확장을 意味하고, 6개의 바퀴살은 太陽의 조각을 의미한다. 바퀴의 축(中央)은 精神的 能力을 밝히는 知覺의 병철점을 상징하는데 이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퀴를 돌리는 者이고 時間과 空間의 주인이며 宇宙的 인간 또는 군주, 佛敎에서는 戒율의 바퀴를 돌리는 부처님 자신인 것이다. 결국 바퀴는 太陽神의 변혁과 결합된 영원한 움직임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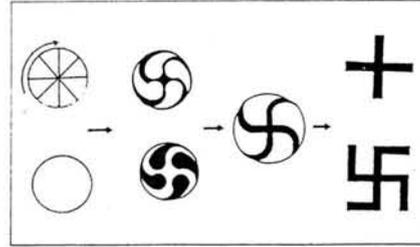
③巴紋：太極의 表現

太極이란 宇宙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물체의 根本이 되는 原素로서 圓속에 陰:陽의 2개의 巴形이 存在하는데 陰:陽 2元論에 의해 宇宙萬物이 生成된다고 한다.

영원한 發展, 繁榮의 象徵이며 道의 根源이다. 이는 東洋의 宇宙體系로 3神思想의 영원한 生命의 根源으로서 첫째는 하늘:땅:사람, 둘째는 調化:敎化:治化, 셋째는 開天:開地:開人 인데 이세가지를 한데 묶어 無極또는 太極이라 한다. 결국 三神思想은 無極 또는 太極이며, 長生不減하고 무궁한 변화가 多勿 生成하는데 존재한다. 〈단군세기〉에 桓雄의 累殿위에 天符印標를 가진 居發桓이라는 大圓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圖像이 太極의 형상으로 추측된다. 巴의 運動방향(右回)은 太陽의 回傳方向이며 自然의 정상적인 運動방향이다.

巴紋에서 十字形과 卍字形이 나온다. (주4)

(그림1)+.卍자형의 생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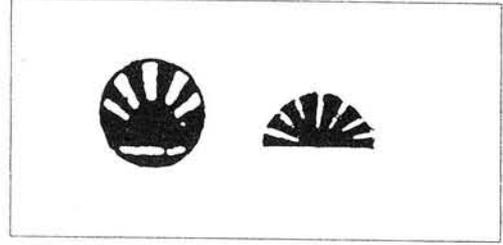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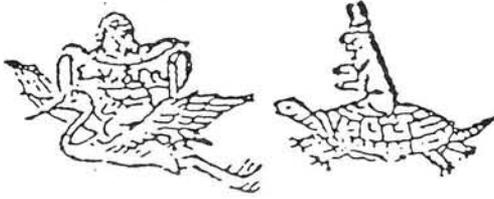
- ④星光象紋: 불활성의 물체가 神과 함께 함으로써 생겨난 빛. 純粹함과 神聖함의 象徵이다. 빛은 太陽에 의해 生成된다. 이 빛은 宇宙의 知性和 모든 입문의 총명과 認識을 象徵한다. 별의 불꽃은 聖靈을 象徵하는 太陽의 再現이며 聖靈의 에너지를 傳達하는 심불이다. 후광은 神聖함 聖스러움을 상징하며 太陽의 原初的인 영광이다.
- ⑤人面象紋: 사람의 머리는 성스러운 힘의 상징이며, 이 類型은 人間과 太陽을 同一한 존재로 認識하는 것에 의해 생겨났다. 많은 神들의 모습은 太陽 그 자체이다.
- ⑥花形紋: 受動的인 原理의 象徵이며 꽃의 開花는 太陽의 상징이다. 연꽃, 장미, 해바라기, 백합, 데이지 등은 상이한 傳統들 속에서 太陽을 象徵한다. 특히 연꽃은 東洋의 太陽象徵이고, 장미는 西洋의 太陽象徵이다. 연꽃은 誕生의 산실이며 創造神들의 신방이고 번식과 순수, 번영의 상징이다. 뿌리는 해결불능의 모습이며, 줄기는 탭줄, 꽃은 성숙의 상징이며 빛에 의한 실현이고, 봉오리는 과거, 꽃은 현재, 씨앗은 미래를 상징한다.
결국 꽃은 물의 陰과 빛의 陽을 결합시키는 총체성이다. 즉 陰과 陽의 힘을 내부에서 조화시켜 완벽함과 계시를 상징하며 자신을 創造하고 자신에 의해 존재한다.
- ⑦鳥入圓紋: 새의 飛上의 能力에 따른 새신앙에서 유래한다. 새는 생명의 숨결, 인간적 영혼, 神의 영혼을 나타내며, 난다(飛上)는 것은 물질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나타낸다. 새의 깃털은 魔力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이다. 中國 神話에서 太陽안에 三足鳥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뿐만 아니라 닭, 봉황, 가릉빈가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소도는 小宇宙이며, 솟대는 宇宙木이고, 솟대위의 새는 Shaman이다. 그 형태는 鳥入圓紋으로 나타난다.

4. 太陽象紋 Mark의 類型別, 時代的 導出

우리나라에서 自會社 image를 위한 선전용 Mark의 사용은 1897년5월18일에 독립신문에 게재된 세창양행 광고를 위한 Mark가 그 始初라고 볼 수 있다. 새위에 타고 나르

주4)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東京: 富山房, 昭和59年, p78~91참고

는 사람과 거북의 등에 올라탄 토끼의 모습으로, 마치 高句麗 벽화에 나오는 듯한 事實적이고 說話的 形態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太陽과 달을 상징하고 있는 韓國의 宇宙觀을 담고 있다. (그림 2)



(그림 2) 세창양행 Mark(1897년5월18일) (그림 3) 태양밀크카라멜 Mark(1958년)

1940년도까지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Mark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1940년대에 스여진 圓안의 닭(닭표 브란디) Mark는 神話속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으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6.25전쟁 이후 1955년경 부터는 본격적으로 Mark가 제작,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태는 매우 진부하며 정확한 작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 때에 따라 형태가 약간씩 바뀌는 것도 있었다. (그림 3)

또 화형문으로 무궁화가 많이 쓰였는데 이는 광복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경부터는 정확한 작도에 의한 Mark제작이 이루어 지기 시작했으며 형태도 사회속에서 認知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作圖에 의한 固定的 形態이어야 할 必要는 업사고 생각되어 붓터치나 free-hand로 Mark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쇄등과 같은 재현기술 매카니즘의 발달의 영향과 함께 視覺정보가 넘치는 현재와 미래에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만으로는 image를 떠오르게 하는 충격이 약하다는 것이 認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Post Modernism의 영향으로 原初的인 原形形態로서 傳換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자연주의(naturalism), 인간존중(humanism)을 내세운 mark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하이테크한 시대속에서 인간이 갖게된 보다 원초적이고 자연지향적인 욕구의 발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양상징 Mark안에 symbol化된 구체적인 상징대상을 조합시킨 경우(그림4)가 많았으며 그 표현 방법 또한 비정형적인 자연스런 형태를 더욱 많이 쓰게 되었다.

(그림4)



1. 신한국당 광진구 강지우당 후보 mark



2. 서대문구 mark



3. 동대문구 mark



4. 제일화재 mark



5. 세양 E.N.G mark

III.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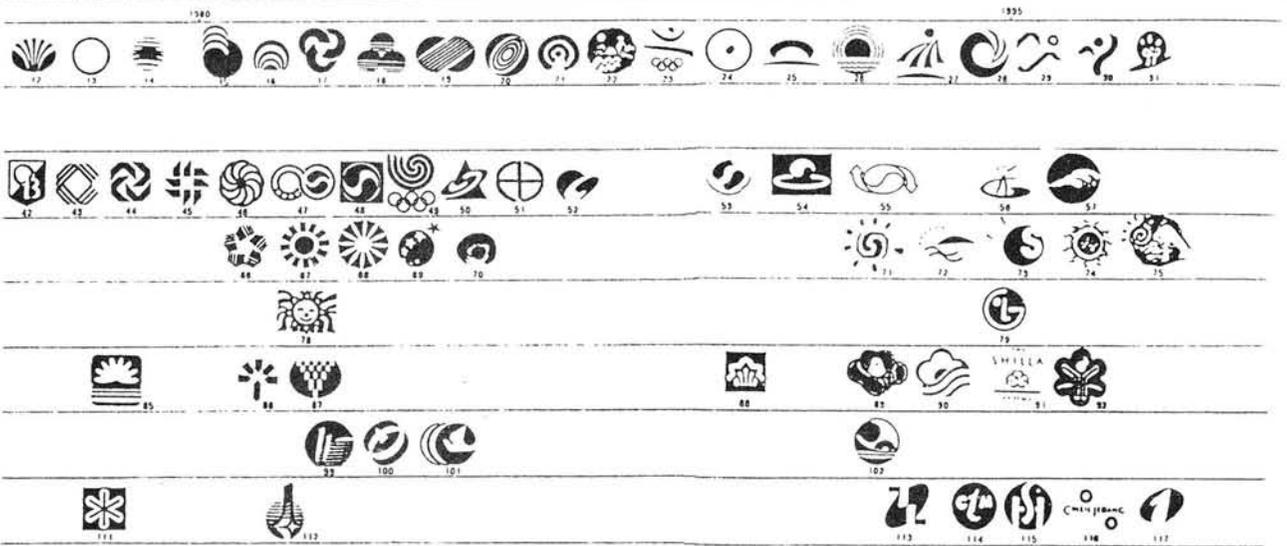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歴史的, 社會的 배경에 의해 本論은 韓國的 紋樣을 太陽象徴紋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現代에 國家의 중요한 公文이나 올림픽 휘장, 올림픽Mark, 대전Expo, 대한항공의 Mark 그리고 太極旗에까지 太陽象徴인 巴(太極)紋이 주로 사용되는 점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 圓紋이나 鳥入圓紋은 우리나라에서 現在 사용하고 있는 Mark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原形을 추정해 본 결과 모두가 太陽象徴紋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은 上承이나 變형, 미래지향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징성의 배경 역시 우리나라 고대문양의 상징성에서 나온 것이다. 現代에는 사람들이 神을 거부하면서 精神속에 神의 不在현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古代紋樣의 상징성도 점차 상실되어 갔었다. 그러나 점차 자연으로의 회귀, 인간존중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原初的인 象徴性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태는 붓터치나 free-hand에 의한 原始的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太陽象徴Mark는 原初的인 原形形態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참 고 문 헌

- 김기웅, 한국의 벽화고분, 서울 : 동화출판사, 1986.
 , 한국의 원시, 고대미술, 서울 : 정음사, 1981.
김병모, 한국인의 발자취, 서울 : 정음사, 1987.
김열규, 한국의 신화, 서울 : 일조각, 1985.
노미선, "한국조문의 조형성 연구", 한양대 사대 논문집 제6호, 1989.
노미선, "시각기호로서의 한국 태양상징문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박만엽, "예술에 있어서 감정과 형식의 문제(S. K. Langer의 Artsymbolism을 중심으로)," 한양여대신문, 1987. 5. 27. p6
박시인, 알타이 문화사연구, 서울 : 탐구당, 1982.
박용숙, 신화체계로 본 한국미술론, 서울 : 일지사.
이용범, 고구려인의 조우삽관에 대하여, 한국사선서, 한만교류사 연구, 서울:동화출판사, 1989.
임영주, "고구려 미술에 나타난 우리조상들의 우주관, " 종합디자인 53호,
 서울월간디자인출판부, 1985.12.
장미진,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양식문제(1)," 미학, 한국미학회, 1984~1985 합병호.
채수명, "금융기관 C.I.P.의현황과 문제점," 종합디자인142호, 서울:월간디자인출판부, 1990. 4.
해노에쉬스, "디자인과 기호학 - 디자인 Process와 관련된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70. 한국디자인포장센타, 1983.10.
 [大韓民報], 1909, [독립신문], 1897, [東亞日報] 1920~1922,
 [만세보], 1907, [매일신보], 1931, [한국일보], 1954
Benoist, Luc, Signes, 윤정선(역), Symbol et Mythes (징표, 상징, 신화), 서울:탐구당, 1988.
Eliade, Mircea, 문상희(역), Shamanism(샤마니즘), 서울 : 삼성출판사, 1977.
Jaffet, A., 이희숙(역), Symbolism in th Visual Art's(미술과 상징), 서울 : 열화당, 1985.
Jung, G., 이부영 외(역), Man and his symbols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집문당, 1985.
Nataf, George, 김정란(역), Symboles, Signes et Marques(상징, 기호, 표지), 서울:열화당, 1987.
Eliadc, Mircea, Images et symboles, France : Gallimard, 1989.
Jul'ien, Nadia, Le dictionnaire marrabout des Symboles, Paries : Marabout D.L., 1989.

(그림5) 유형별, 시대별 태양상징마크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원형				12	13	14	15		16	17	18				
문자				19	20										21
기타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형				31	32								33	34	35
문자				36	37			38	39						
기타	40	41		42	43										
원형				44	45			46	47	48					
문자				49	50										
기타	51	52		53	54										
원형				55	56										
문자				57	58										
기타	59	60		61	62										
원형				63	64										
문자				65	66										
기타	67	68		69	70										
원형				71	72										
문자				73	74										
기타	75	76		77	78										
원형				79	80										
문자				81	82										
기타	83	84		85	86										
원형				87	88										
문자				89	90										
기타	91	92		93	94										
원형				95	96										
문자				97	98										
기타	99	100		101	102										
원형				103	104										
문자				105	106										
기타	107	108		109	110										



1. 돈표 비누	symbol-mark	40. 댄-마발동기	symbol-mark	79. 금성	symbol-mark
2. 피도다민 제약	"	41. 디자인포장센터	"	80. 雪花粉	"
3. 대한통운	"	42. 동양맥주	"	81. 조선은행	"
4. 조흥은행	"	43. 제일모직	"	82. 화신백화점	"
5. 한국일보	"	44. 동아건설	"	83. 무궁화표 메리야스	"
6. 충남방직	"	45. 한국외환은행	"	84. 동화백화점	"
7. 신세계백화점	"	46. 서통(주)	"	85. 불일서적	"
8. 영진약품	"	47.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mark	86. 한일은행	"
9. 일양약품	"	48. 대한항공	symbol-mark	87. 한국투자신탁	"
10. 한일약품	"	49. '88 서울올림픽	"	88. 부천시	"
11. 상업은행	"	50. 서울신탁은행	"	89. 서초구	"
12. 대우	"	51. '89 세계성체대회	"	90. 증량구	"
13. Sun 담배	"	52. '93 대전 EXPO	"	91. Hotel 신라	"
14. 조일기획	"	53. 신한여행사	"	92. 생활개선회	"
15. 부산은행	"	54. 민자당	"	93. 세창야행	"
16. 한국투자금융	"	55. 자원재생공사 재활용 환경	"	94. 일본기	"
17. 중소기업은행	"	56. 신한국당 광진구갑 지구당 후보	"	95. 닭표 브란디	"
18. 조흥은행	"	57. 해운항만청 바다의 날	"	96. 일동제약	"
19. 한국전력공사	"	58. 제일은행	"	97. 서울 理研工業	"
20. 문화방송	"	59. 十八銀行	"	98. 대한항공	"
21. 백화점	"	60. 독일염료	symbol-mark	99. 현대백화점	"
22. 동화은행	"	61. 동성제약	"	100. 장기신용은행	"
23. '92 바르셀로나올림픽	"	62. 태양밀크카라멜	"	101. 청암유스호스텔	"
24. 한백연구재단	"	63. 금성	"	102. 동작구	"
25. 세광인쇄소	"	64. 동방유량	"	103. 역도표원기소	"
26. 양천구	"	65. 동양제과	"	104. 유한양행	"
27. 강서구	"	66. 주택은행	"	105. 建一藥品	"
28. 인천시	"	67. 동부그룹	"	106. 제일제당	"
29. 강원도 전국체전	"	68. 한국증권금융	"	107. 한국전력	"
30. 서울시	"	69. 동양제과	"	108. 삼양사	"
31. 세양 E.N.G	"	70. 매니지먼트 회사	"	109. 삼성건설	"
32. 중앙철공소	"	71. 정선축제	"	110. 한일개발	"
33. 조선일보	"	72. 강동구	"	111. 제일제당	"
34. 동아일보	"	73. 삼흥여행사	"	112. 대한생명보험	"
35. 기아산업	"	74. '96 한화광고대상	"	113. 강남구	"
36. 삼미사	"	75. 충북 100년	"	114. 제주이동통신	"
37. 천도의약	"	76. 교학사	"	115. 희성그룹	"
38. 제일은행	"	77. 롯데공업주식회사	"	116. 제일제당	"
39. 대한민보사	印章	78. 피자스테이크	"	117. 제일화재	"

